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3년도 표어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행동지침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아모스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

(아모스 6장 1 - 14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핵심은 공의와 정의입니다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주의에 빠져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신앙적 안일주의에 빠져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안일한 삶이란 매우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하시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계 14:13),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사 57:20).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아모스가 책망하는 안일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방심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성도가 많을수록 훌륭한 교회입니다.

1.누가 안일한 사람인가

(1)교만한 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1절).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산지대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원수로부터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예루살렘은 남 유다의 수도로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은 너무 좋은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이들이 의지한 것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완전 복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 곧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은 형식일 뿐이었으나 그들은 이런 일들을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갈레, 하맛, 가드는 천연 조건이 훌륭한 도시였으나 황폐해지고 멸망한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2-3절). 저들이 죄값으로 망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값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꾸물거리는 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3절).

심판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번영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행 24:25)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결국 예수 없이 죽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아직은 평안의 잠을 잘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눅 4:19-20).

이 부자는 영적인 잠에 빠진 안일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처럼 멀리 있지 않습니다.

(3)방종하는 자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4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치와 연락에 빠져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매우 인색했습니다.

자신의 부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 때 국가나 교회나 개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이웃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다 쓰고 남은 찌꺼기를 준다면 그것은 결코 희생의 제물이 아닙니다.

2.안일한 자의 잘못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고 무관심하면서도 자기는 시온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7절).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능한 것으로 착각했으나 사로잡히는 자에 앞서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8절).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편하면 남도 배가 부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죄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성도가 많을수록 훌륭한 교회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12절).

이것은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은 상식이 없어지고 진리가 매장이 되는 때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악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선을 행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봉사하는 일을 날마다 찾아 하며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축하 잔칫

-5월4일 주일에 풍성한 행사 가져-

우리교회는 어린이 주일인 5월4일(주)을 부푼 기대감을 갖고 교회로 향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날로 기억되는 어린이 주일이 되도록 교육1국(국장: 오정수 장로) 주관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풍성한 행사를 갖기로 하였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교회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며 자세한 축하잔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09:00 – 10:00 : 모두 함께 가족예배 드리기
10:00 – 11:00 : 교회학교 각 부서(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별 모임
11:00 – 13:00 : 신나는 축하잔치
즐거운 놀이마당(9층 옥상)
인형극의 집(706호, 유치부실)
재미있는 영화보기(101호)
사진 찍기
맛있는 점심과 간식(솜사탕, 팝콘 등)(8층 식당, 9층 옥상)

이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예쁜 기념품이 준비된다.

파이프 오르간 설치 작업 시작되다

-성도들의 기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

지난 4월24일(목)과 25일(금)에 파이프 오르간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 트럭 3대가 교회에 도착하여 성도들과 직원, 독일인 기술자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부품의 하역을 완료하였다.

현재 부품은 본 교회 2층 로비와 본당1층 좌측에 적재되어있다. 따라서 금주부터 주일예배와 각종 모임의 참석을 위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오르간 설치의 편의와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송 및 하역을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봉헌하는 순간까지 계속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3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지난 주일 찬양예배를 부활절 감사 찬양예배로 준비하며 매월 셋째주일에 갖던 성경통독자 시상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갖기로 한 교회는 예정대로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다음과 같이 3월 성경통독자를 시상한다.

3독
이윤영 권사(5교구)
2독
김태기 장로(4교구)
1독
김인식 권사(8교구) 서문석 장로(8교구)
김희진 권사(9교구) 황재연 권사(9교구)
이안순 권사(12교구) 정빈모 집사(12교구)
임상헌 장로(12교구) 우스라 성도(12교구)
김광신 장로(12교구) 이인선 권사(12교구)
김정호 집사(12교구) 최광성 집사(12교구)
오형철 집사(12교구) 김우숙 권사(14교구)
이상 16명

육사세례식에 다녀와서

젊은 생도들의 힘찬 신앙의 고백

유영준 집사 (3교구)

지난 토요일 부활주일을 하루 앞둔 그날 우리교회는 육군 사관학교 세례식을 주관하였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이라도 하듯 거의 온종일 비가 내렸으나 다행히도 토요일에는 비가 그쳐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어 버스에 몸을 싣고 육사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오늘 세례를 받을 생도들이 이미 착석하여 세례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육사 세례식이 시작되었고 오늘 이 시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오늘 세례받는 생도들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며,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제 뇌리에 깊이 기억되었습니다.

세례자 서약 시에는 세례문답의 4가지 질문에 답하는 생도들의 "예"하는 우렁차고 절도 있는 소리가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국방을 최일선에서 짊어지게 될 젊은 생도들의 힘찬 신앙의 고백이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세례식을 다 마친 후 돌아오는 차안에서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며 오늘 세례를 받은 생도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평생을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특별부흥사경회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지난 21일 도미하신 이종윤 목사는 필라델피아 연합 장로회가 주최하고 미주 동아일보와 필라 기독교 방송이 후원하는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특별부흥사경회의 강사로 3일간 수고하셨다.

이종윤 목사는 이번 사경회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들이 맞은 12가지의 위기와 성경은 이 위기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사도들이 맞았던 시대적 위기는 초대교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개인주의 위기

-흩어졌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모였다. 이처럼 모여서 더불어 살 때 개인주의 위기가 해결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2.박해의 위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적 박해는 오늘도 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더욱 뜨거우며,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마침내 승리가 온다.

3.강조점에 대한 위기

-사도들에게는 강조할 것은 강조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야 할 것은 강조하는 강조점에 대한 위기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같은 신앙의 강조점(Accent)이 있어야 한다.

4.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위기

-이것은 영적 위기이다. 우리는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치관이 변한 삶을 살아야 한다.

5.조직의 위기

-교회의 조직은 없을수록 아름다우나 불가피한 것이다. 성령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 영적 조직을 만드셨다.

6.자기 동일성의 위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소망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항상 자기 동일성(self-identity)을 유지해야 한다

7.위선의 위기

-오늘 기독교 신앙은 위선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진리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8.우선권에 대한 위기

-시대적 위기를 맞은 기독교인은 우선권(priority)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 가장 긴급하며 가장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9.성장하는 가운데 오는 위기

-초대교회에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독버섯처럼 퍼져 나갔다. 이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극복할 수 있다.

10.편견의 위기

-독선과 아집, 감정과 이해관계 때문에 편견이 생긴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경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11.전략상의 위기

-교회는 돈과 힘과 명예의 전략이 아닌 믿음과 성령의 권능과 희생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12.지도자의 위기

-지도자는 복음에 대한 절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성도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지도자, 연합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열렸던 이번 특별부흥사경회는 연일 밤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어졌으나 필라델피아 한인들에게는 아쉽기만 한 시간이었다. 이 목사는 10명이 변하면 필라델피아가 변하고, 필라델피아가 변하면 미국이 변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디 필라델피아 이민 사회가 미국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여 미국과 조국의 시대적 위기를 해결하는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 이곳 필라델피아는 이 목사에게는 제 2의 고향과 같은 곳이며 신학생 시절 이민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한바 있어 많은 이들이 당시의 이 목사님을 추억하고 있다. 77년 이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필라 장로연합회의 회장 윤영석 장로는 이 목사님을 '겸손한 목회자의 표상'이라고 말한다.

계속되는 이종윤 목사의 여정과 일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허 숙 (편집부)

부활의 기쁨을 함께한 서울교회

다시 사신 구세주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학교의 다채로운 행사들로 지난 주 교회 곳곳에서는 분주하고도 활발한 움직임에 술렁였다.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재치 있게 꾸며진 달걀들이 오가고, 달걀과 함께 부활절의 기쁜 소식과 감사가 오가는 주일이었다.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 부활절 성극제에는 초등부 학생들의 찬양과 율동이 어우러진 음악극 <내 눈을 열어 주세요>를 시작으로, 대학부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서울교회 성극부가 준비한 성극 <God is Love>가 공연되었는데, 교회학교 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객석을 채워 즐거움을 나누었다. 수화를 겸한 노래극 형식의 <내 눈을 열어 주세요>은 아름다운 안무와 초등부 어린이들의 작은 몸짓이 이루어내는 천국의 언어 같았고, 어머니가 들려주는 한 편의 동화 같은 성극 <God is Love>는 잔잔한 감동과 진지한 울림을 주는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특히 극중 주인공 '소망이'역을 맡은 8살 윤진원 군의 마지막 대사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한 마음이 되어 무대를 지켜보았다. 한편 유치부는 예수님 맞이 기쁨을 풍선과 종려나무가지로 환영하는 놀이와 교사들이 준비한 인형극 행사를 가졌는데, 고사리 손이 흔드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자그마한 동산처럼 보였다.

8층 만나 홀 앞에는 어린이 찬양예배부에서 준비한 부활절 주제 작품전이 눈길을 끌었고, 유년부에서는 우중에도 풍선과 달걀을 들고 노방전도에 나서 교회학교의 축제는 대치동 주변까지 이어졌다. 고난주간 동안 묵상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활절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행사와 의식으로 기쁨을 나누는 교회학교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리라. 또한 이들과 함께 한 교사들과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에 부활의 기쁨은 배가 되고, 교회학교가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릴 것이다.

또한 601호 청년부실에선 연신 깔깔깔 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백 여 명의 젊은이들이 한데 모인 이 곳에는 부활주일을 기념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 부활절에는 기념 계란 나누기와 더불어 청년들이 준비한 또 다른 행사가 마련됐다.

이른바 플로잉(flowing)이란 행사다. 각자 자기 소지품 가운데 다른 지체들에겐 필요한 물건이지만 자기에겐 굳이 필요치 않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 물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한 뒤 필요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에게 주는 것이다.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자는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다. 또 자신에게는 필요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겐 요긴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지켜보며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해오고 있는 모음과 나눔의 장, 또는 나눔의 집 운영이 청년부 규모에 맞춰 열린 셈이다.

행사를 마친 뒤 한 주가 지나기까지도 인터넷의 서울교회 청년부 사이트에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애교섞인 요청이 이어졌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청년부 젊은이들의 나눔의 신앙이 더욱 큰 열매로 맺어지길 기대해 본다.

(정리: 김민철 · 나소정)

한마음.한가족 축제 10일 앞으로

-찬양과 화합과 기도의 축제로-

이용식목사(교구위원회 담당)

하나님은 가족의 달 오월에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축제의 장을 여는 축복된 날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번축제는 우리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는 서울교회의 한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어우러져 신명나는 놀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 내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경기로 구성 되어 더욱 재미있습니다. 이 축제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힘 있게 뛰고 목이 터지게 응원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축제의 날에 한마음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쉼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5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위원장:이완형장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5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밀알학교(강남 삼성병원 정문 맞은 편)에서 열리는 본 축제는 <열린 교회, 화목한 가정, 섬기는 우리>라는 표어 아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23:5)'를 주제 성구로 채택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팀 구성)

청팀(1-7교구, 응원단장: 하영수 장로)과 백팀(8-14교구, 응원단장: 오정수 장로)으로 나누어 뜨거운 응원전과 함께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12개의 재미있는 화합의 경기와 중고등부, 대청부의 농구게임이 벌어지며 필그림 중창단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의 축제도 펼친다.

(유니폼):

4월27일(주) 5월4일(주) 104호 응접실에서 판매

유니폼은 오늘(27일 주일)부터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은 교회학교를 통해 1,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일반 성도들은 1층 응접실에서 교구별로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참가 인원의 예상과 부족한 유니폼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제작되는 유니폼은 앞으로 교회의 하계행사-성경학교, 농촌봉사 -등에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다.

(식사 및 기타사항)

점심식사는 충분한 교제와 기도제목의 나눔을 위해 1시간 20분으로 정하고 교역자별로 2개 교구를 묶어 7개 장소로 나누고 장소배정은 추첨을 통해 정하기로 하였다. 축제 팜플렛 안에 행운권과 함께 삽입돼 있는 기도제목 카드 4장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적도록 되어 있고 폐회 예배 시간에는 적힌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운권 추첨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증한 상품으로 시상식 후 있을 예정인데 중보기도 카드 4장을 다 적지 못하면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점심 식사 후에는 경로대학과 에바다부, 새가족부의 특순도 있을 예정이다.

(경기 종목)

1. 큰 공을 굴려라
2. 동역자를 찾아라
3. 라면박스 위를 뛰어라
4. 응원단장에게 옷을 입혀라
5. 한마음, 한 돗자리
6. 공을 날라라
7. 작은 줄을 선점하라
8. 풍선을 폭파하라
9. 한마음 줄넘기
10. 줄다리기 대전
11. 앞을 보고 달려라
12. 한가족. 한마음 축구
13. 중.고등부 농구
14. 대.청부 농구

성도가 서로 교통했습니다

김상태 성도 (14교구)

지난 4월12일 토요일, 요리문답반 예배와 친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처음 경험한다는 것은 신비롭고 놀랍기도 하지만 왠지 어설프고 부자연스러운 것은 누구나 겪는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처음인지라 몹시 부담스럽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임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교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 라는 고백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 단체와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각종 모임과 만남은 어찌 보면 이해 타산적이고 허례 허식적이며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그 무리들에 저도 속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요리문답반의 모임은 30대에서부터 인생의 풍파를 겪어 오신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40여분이 참석하였으나 그야말로 순수하고 맑아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되는 저에게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엮어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요리문답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안에서 봉사하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5월 2일 (금)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 번역을 위한 각 교단 지도자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다.
- 이사: 김영일 집사, 박정옥 권사 가정(8교구) 노원구 상계5동 456-93 동성아트빌 401호 tel)938-0167
  · 이동권 집사, 박경자 집사 가정(8교구) 도봉구 도봉동 도봉아트빌 201-702 tel)3443-8790
- 개업: 안분선 권사(12교구), 샤르르 샤브샤브 개업 , 광진구 광장동 339-7 한성빌딩 3층 tel)3437-5032, 3437-5042
  · 우정옥 성도(13교구) 은마쌈밥집 은마상가 A-232 tel)565-5908
- **금주의 식사**: 정동호 집사 · 김정임 집사 가정 (어머니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김사무엘 장로, 정경월 권사 가정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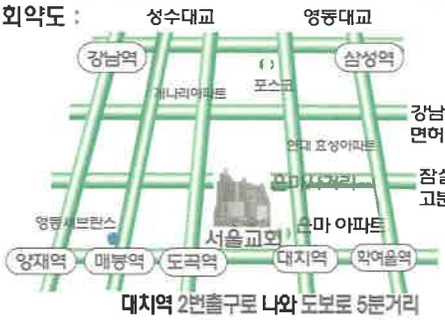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5월 8일에 열리는 한마음 · 한가족축제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